

# 내실있는 운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반년 넘게 부원장으로 상근했기 때문에 원장에 선임되었다고 해서 감회가 별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학원을 총괄하는 위치에 서다 보니 책임이 더 무거워져 부담이 되고 모든 게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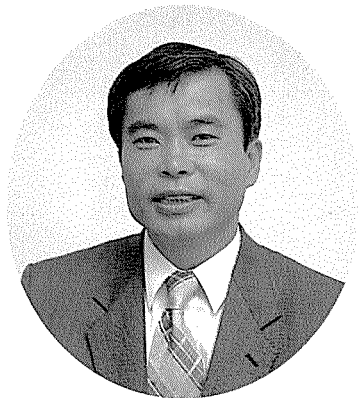
대한제과기술학원 이홍렬 원장은 취임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널리 알려진 대로 대한제과기술학원은 1984년 30명의 제과업주들이 자신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과우장학회가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세운 교육기관.

학원의 모체라 할 수 있는 과우장학회는 지난 6월 14일 제10차 정기총회를 열고 권종철 회장을 장학회 회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장학회 부회장과 대한제과기술학원 원장에 이홍렬 원장을 선임했다.

“전임 원장들께서 힘쓰신 덕택에 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기관으로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홍렬 원장이 밝히는 학원 내실화



이 홍 렬  
대한제과기술학원 원장

운영 계획은 장학사업의 확대, 교육의 질과 환경을 높이는 것.

현재 철저한 평가 과정을 거쳐 분기마다 3명에게 30만원, 20만원, 10만원씩 지급되는 1년과정 장학금의 숫자를 늘릴 계획이며 6개월 고등반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에는 과우장학회에서 운영하는 학원인 만큼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부여하려는 애초 설립 취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또 6개월 과정의 경우 3개월 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기 수업으

로 진행되고 나머지 3개월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 최근 유행하는 빵과 과자를 가르치는 독특한 교육내용도 더 내실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0일 정부가 기술계 전문학원의 시장 개방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자본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외국 학원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질 높은 교육과 이를 뒷받침할 시설 등 교육 환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홍렬 원장은 현재 건물이 낡고 비좁아 학생들이 수강하는데 불편이 많은 만큼 쾌적한 분위기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계획하고 있는 전문학교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여건이 성숙할 수 있도록 내실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설립돼 체계있고 철저한 교육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제과기술학원. 이곳은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해 온 사업의 바탕 위에 새로 선임된 이홍렬 원장이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1]